

16교구 2팀 단기선교 사역 보고서

1. 기 간 : 2015년 8월 3일(월) ~ 2015년 8월 11일(화) (8박 9일)
 2. 국가/사역지역 : 라오스 르앙프라방
 3. 교구/교회학교 : 16교구
 4. 팀 장 : 김 종 녀 (서명) 서기 : 김 정 남 (서명)
 5. 보고일자 : 2015년 8월 16일
 6. 보고내용 :

1. 사역에 대한 총평	1. 우동싸이는 현재 우기로 인하여 길이 막혔고, 도시보다 감사의 눈길에 더 드러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르앙프라방에서 선교사역을 진행 함. 2. 시내 정탐 및 현지 교회를 둘러보며 르앙프라방 지역의 영적 상황을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됨. 3. 현지 선교사님의 충실한 사역과 현지인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이 인상적이었고, 교회 차원에서 라오스 선교에 협력이 있으면 좋을 듯함. 4. 현지 선교사와의 협력사역을 하게 되는 경우 동역교회 전도사역 방식이 좋을 듯 하고, 교회의 독립선교방침대로 선교한다면 북부보다 남부지역으로 선교지를 택하는 게 좋을 듯함. 5. 현지인 지도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 선교사와의 협력이 필요할 듯함.
2. 추천할 내용	현지 교회를 방문 할 경우 교회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찬양 율동을 확실하게 알려주면 그들이 배워 복음전파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음.
3. 특별보고 내용	1. 현재 교회에서 진행 중인 현지교회 개척은 현지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현지인을 양육하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환경이 됨을 보고합니다.
4. 선교위원회와 건의사항	1. 선교언어(필수암기, 권장암기)의 추가와 수정 보완이 필요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등)추가 2. 어린이들에게 찬양, 율동을 단시간 내 가르치기 위해 율동을 아주 단순화 할 필요 있으며 이왕이면 타 교회도 공통으로 사용하는 율동이 필요- 현지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 주어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전도지의 내용과 그림을 큰 스케치북 사이즈로 만들어 어린이용 전도사역에 사용할 수 있게 선교위원회 차원에서 제작해 주기바람. 꼭 필요한 항목임

7. 현지 및 기사 정보

• 정치/경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 사회주의 경제		• 종교상황 • 치안상황	• 불교 • 외국인의 포교활동 금지 • 감시경찰이 많음
• 교회에서 배운 선교언어 현지인의 이해 정도		현지인들이 잘 알아들음. 라오스 국민들 중엔 라오스어를 안 쓰는 종족도 있음.(몽족)			
* 기 사 정 보		성명	씨명	차종	뉴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1일 비용	50\$	☎		추천 여부	적극 추천 (0) 보통 추천 () 적극 반대 () 한국어 가능 () 영어 가능 ()
총 비 용	400\$	이메일	없음		
기사 평가		믿는 자는 아니지만 현지선교사와 어느 정도 개인적 유대관계가 있어 신고의 위험이 없고, 친절하고 신뢰할 만함. 영어가 가능하지 않아 라오어 외에는 의사소통 어려울 듯 함.			

8. 추천하고 싶은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

도시 및 호텔명	요금(USD)		시설내역(유/무)		☎ 또는 이메일	
르앙프라방 Phashoke guest house	2인1실	20\$	온 수	유	☎	856-71-252108
	3인1실	25\$	냉 난 방	유	이메일	Phashoke@gmail.com
	기타		아침식사			
숙 소 평 가	청결도 다소 떨어짐. 시장에서 가까움.					

9. 사역 경로

사역지	숙소에서 이동거리(KM)	이 동 소요시간	사역지 향후 전망 및 현지인 반응	사 역 지 교회유무	전도방법
(르앙프라방 인근) 반 쌍콩	약 4Km	약 40분	경찰 감시 및 신고 위험		정탐 및 노방 전도 및 축호 전도
반 파숙	약 4Km	약 50분	경찰 감시 및 신고 위험	반파숙 교회	정탐 및 노방 전도 및 축호 전도
락 뽀 마을	약 8Km	약 60분	경찰 감시 및 신고 위험		정탐 및 노방 전도 및 축호 전도
현싸완어린이집	약 3Km	약 40분	원장(현지인 전도사)이 10대 청소년 사역 비전 가지고 있음. 재정적 후원 과 어린이 사역 필요		방문, 기도 기숙사에서 번 도
후와이 타오	약 20Km	약 60분	밀음의 1세대들이 신앙의 핍박을 피해 이주해 형성 된 마을로서 신고 위험 없고, 복음전도, 어린이 사역 필요	후와이 타오 교회	현지 교인들과 찬양 율동 교제, 축호 전도 기도요청하여 함 께 기도함
후아이 히아	약 20Km	약 80분	신고 위험 있어 축호전도 불가	후아이 히아 교회	현지교인들과 찬양, 율동 교제
백후 와이커 교회	약 20km	약 90분	인구대비 기독교인 가장 많음. 주민들이 낮에 산에 일하러 감.		현지교인들과 찬양, 율동 교제 교회 전도언어로 교회앞에 정확한 복음전도하였음

10. 향후 인터넷 선교 가능한 피 접촉자 정보

성명	E-Mail 주소		영어능력(상/중/하)
해	당	없	음

라오스 선교를 다녀와서

16일 2월
주 선 례

네팔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였던곳이 지진으로 인해
라오스로 선교지가 바뀌게 되었다.

라오스에는 몇번 계절과식 선교를 다녀왔기에
이번 선교에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알고싶었다
예수님을 전하면 벌금과 함께 추방 당하게되기 두려움이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심을 보게 되었다
예수님을 전하면 법으로 많은 핍박을 하고있는 라오스에
귀한 영혼은 깨워가는 일군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곳곳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을 만날수 있었다
내가 이제 무엇을 두려워 하랴
주님앞에 주여 이리인의 믿음이 부족하였음을 회개하며
부족하지만 주님 뜻대로 사모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

선교소감문

(사역기간 : 2015. 8. 3. ~ 2015. 8. 11.)

팀 번호 : 26번

16교구(부) 2팀 (팀장: 김종녀 권사) 성명 :

김종녀

라임스 선교를 걱정하고 마음의 간증이 있었다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이라 올해 처음으로 나가는 팀이라는 것
알기 때문이었다. 그렇 부랴부랴 안고 우듬사이로 선교지로 결성하고
가도로 준비 하였다. 현지에 선교사와의 접촉이 가능하며 선교사역에 도움을
받을수 있었다. 선교지에는 우기로 땅이 양아 각수 있었지만 거창지인 ~~후~~
주왕포구에서 그곳의 기독교 현황과 교회를 돌아볼수 있었다.
시내에선 노방전도나 축회전도가 여의치 않아서 이번사역은 현지에 가서
사역의 방향을 바꿀수 밖에 없었다. 현지인 교회를 찾아가고 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과 기독교인들의 생활모습을 간혹히 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시내에서는 특히 외국인인 전도할수 있도록 비인 경찰과 밀고자들은 곳곳에서
활동하며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교회는 세워도 십자가를 다지 못하게
하고 있어 그곳의 교회는 십자가가 없이 그의 가정교회 형식이었지만 몇몇
교회는 20여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60-70명이 모이는 곳도 있었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 예배드리는 모습은
보았다. 그곳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며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의 한이었던 상황들과 동생한 환경들이 어떻게 부패하게 느껴졌는지.....
주제교회의 사역자들이 핍박 받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셨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볼수 있었다면 현지 라임스 땅에서 핍박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라임스는 성경을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전하는 모습 가운데서 성경을
나를 보았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통해 볼수 있었다. 식아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번 선교사역을 통해 체험 할수 있었다. 현지에서 사역하고있는
선교사의 모습 또한 생생하게 볼수 있었다. 현지인 사역자들은 기워나고있어 전례하고
있었다. 기워동안 한곳에서 사역하면서 현지인 사역자들 80이나 기워서 (전지사역자)
당당하게 목회하고 있는 현지교회를 보았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목서지
않고서도 믿고 기어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볼수 있는 기회였다
남은 생애에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될수 있는 선교였다
각자의 뜻대로 정하며 볼수 있는 나머지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볼수 있기를 바란다

4개월 동안의 선교훈련을 마치고 라오스로 향하던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두려움 반 기대 반 이었다. 라오스의 선교사역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소식을 들었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다. 우리가 가고자 했던 우뚝싸이는 우기로 인해 산사태가 나고 길이 훼손되어 갈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르앙프라방에서의 사역이 결정되었다. 르앙프라방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곳이기에 감시와 감독이 철저한 곳으로 경찰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다. 현지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외국인이 선교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에 걸리면 벌금과 함께 추방이 된다고 했다. 현지 선교사님의 안내를 따라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을 만났고 함께 기도했다.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대대로 지켜낸 그들의 믿음을 통해 안일했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었다. 라오스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공직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여러 상황에서 고립된 생활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깊은 산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림에도 불구하고 걱정 근심에 절어 사는 우리와는 대조적인 모습에서 지금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축호전도와 길거리 전도를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저들의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사는 모습이었다. 우리가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온 몸으로 실감했다. 짧은 기간 동안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외치며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나마 믿는 자들로 기복적으로 믿는 자들도 많았다. 외국인의 선교사역을 금하고 있는 것을 통해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현지의 사역자들 키워 내는 일이 정말 시급하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지 사역자는 문화와 정서면에 공감도가 빠르기에 주님의 나라 확장에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주님의 방법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믿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든, 무엇으로든 할 수 있는 때를 위해 오늘도 내일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계속 드는 것은 예수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때문이라. 앞으로 라오스를 향한 주님의 뜻을 따라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다짐해 본다.

선교소감문

(사역기간 : 2015. 8. 3. ~ 2015. 8. 11.)

팀 번호 : 26번 16교구(부) 2팀 (팀장: 김종녀 권사) 성명 : 변금순

라오스 우듬색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준비를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사역을 바꾸셨다
무척 당황했다 그것은 우기로 인해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서 가장 기독교인들을 주시하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가장 적합한 곳으로 보내지지 않았나 생각했다
현지 선교사님과 현지에서 복음위해 고령 받고있는 그들을 바라볼때
다시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시간이 되었다
곳곳마다 경찰관들이 기독교인들을 저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모든상황은 주님께 맡기면 종인의 사역을 감당
했다 예수 믿는다는 것때문에 신속 같은대 까지 밀려가 산속
깊은곳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이제는 세상과 접하며 신앙이
흔들린다고 했다 경찰들은 그들을 괴롭히려 그곳에서 쫓아내기까지
하기때문 이나 정말 안타깝다 그러나 어린이들을 바라볼때 희망이
보였다 우리는 도움방법은 없지만 끝까지 저들을 위해 기도할것이다
하루속히 그곳에 불교세력이 약해지고 그리스도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길
기도할 것이다

선교소감문

(사역기간 : 2015. 8. 3. ~ 2015. 8. 11.)

팀 번호 : 26번

16교구(부) 2팀 (팀장: 김종녀 권사)

성명 : 김영희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유혹과 부끄럼을
내려 놓고 오직의 가운데서 생명의 빛을
형제 자매들께 주의 영성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경찰의 감시가 엄격해
리눅스 신화라는 별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한 믿음 생활이 감시와 찬송
드리며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선교소감문

(사역기간 : 2015. 8. 3. ~ 2015. 8. 11.)

팀 번호 : 26번

16교구(부) 2팀 (팀장: 김종녀 권사) 성명 :

양 수정

저는 이번 라오스 선교도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금 더 위험하다고 말만 들었지 대체적으로 하면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여기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목사님께서 영점으로 가으신 봉공 전도사님께서 제신곳에 가고자 했었는데 그곳은 40여명의 여자 기독교생들이 있다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전도사님께서 사역하신다는 말을 듣고

가기로 했었는데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3번이나 경찰이 다녀갔다고 했습시다 요즘 부쩍이나 경찰들이 자주 들어와친다고 합니다.

라오스의 상황이 이러니 좀 의기 소침해 있었습시다 다음날 우리는 교회 근처에서 사역해도 된다는 말에 기뻐서 그 교회를 차로 1시간 걸려서 같은 산속으로 갔습시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핏발을 받아 보아서 교회를 만들고 50여가구가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굳이 그곳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이 아슬아슬하고 이어지면서 마음이 약해져 교회도 ~~안~~ 나온다고해서 그들은 상대로 가정을 다니면서 복음전도를 하였습니다

주말에는 ~~최소한~~ ^{최소한} 교회가 있다해서 차로 30분 정도 가서 좁은 골목을 꼬분꼬분 지나 교회가 나왔습시다 비록 교회 밖에 십자가는 없었지만 그안의 예배의 열기가 넘쳤습시다 젊은 사람들이 많아 찬양과 말씀이 있음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승려 놓으신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전도사님께서는 교사직을 그만두고 전도사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나의 믿음 적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 보게 하였습니다.

라오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공직에서 그만두고 쫓겨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대들도 공직으로 못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따르는 라오스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얼마나 자유적으로 예배드리는지 다시 한번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